



소상공인·시장

ISSUE & NEWS PAPER

**폐업 소상공인의 낙인효과와
소상공인 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지현 책임연구원

Contents | 폐업 소상공인의 낙인효과와 소상공인 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 서론	05
II. 신생 및 소멸 현황	07
III. 분석 모형 및 자료	08
IV. 생존분석 결과	13
V.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향	15
VI. 시사점	18

폐업 소상공인의 낙인효과와 소상공인 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지현 책임연구원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소상공인은 개별 기업은 작지만 전체 수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매우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 소상공인 기업 수는 645만 개로 전체 기업 수의 94.6%를 차지함¹
 - 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기능, 고용기능, 내수 시장 순환 등 경제 순환의 역할을 수행함
- 소상공인의 잦은 폐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사회적 부담을 확대하므로 폐업 후 재기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많은 연구들은 소상공인의 잦은 폐업 후 재창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정은애 외, 2021; 남윤미, 2017; 조영룡 · 박주영, 2021; 지용하 · 양해술, 2009)
 -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상공인의 신생률은 15.8%, 소멸률은 11.8%로 신생률과 소멸률이 비슷한 수준임
 - 국세통계의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같은 해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의 폐업자 수보다 신규 창업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므로 동일한 업종의 창업과 폐업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면서 창 · 폐업 과 관련된 직접비용 외에도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는 지역경제활력 감소, 커뮤니케이션 기능 축소,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용기능 저하, 내수 시장 위축 등이 있음(이민정 · 김양중, 2019; 박국호, 2020)

1. 기업생멸통계

- 소상공인 개인의 문제로 폐업 및 창업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및 소비감소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내수시장의 위축 및 저성장의 악순환을 야기 할 수 있음(강주연 외, 2015)
-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재기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면 위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므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소상공인의 실업에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 Heckman & Borjas(1980)는 실업지속메커니즘(Unemployment persistence mechanism), 일명 실업의 낙인효과를 설명함
 - 실업지속메커니즘은 실업상태가 고용주에게 부정적인 정보로 받아들여져 더 긴 기간 실업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임
 - 또한 실업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또는 조건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함
- 소상공인의 폐업은 사실상 실업상태라 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도 실업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음
 - 홍서연·안주엽(2002)과 강순희·안준기(2010)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에도 낙인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함

●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지원방안 마련이 중요함**

- 소상공인의 폐업은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며, 실업상태의 지속은 더 많은 사회적 비용 및 기간이 필요할 수 있음
- 이에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 지원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재기와 관련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실업상태에 낙인효과 존재여부 및 개인적 특성, 폐업 사업체의 특성이 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함
-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적 특성 및 폐업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재기 지원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임

2. 연구 목적

● **소상공인의 개인·폐업사업체 특성이 재기 및 재기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의 재기에 낙인효과 존재여부, 소상공인 개인의 특성 및 폐업 사업체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
- 소상공인 재기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소상공인 재기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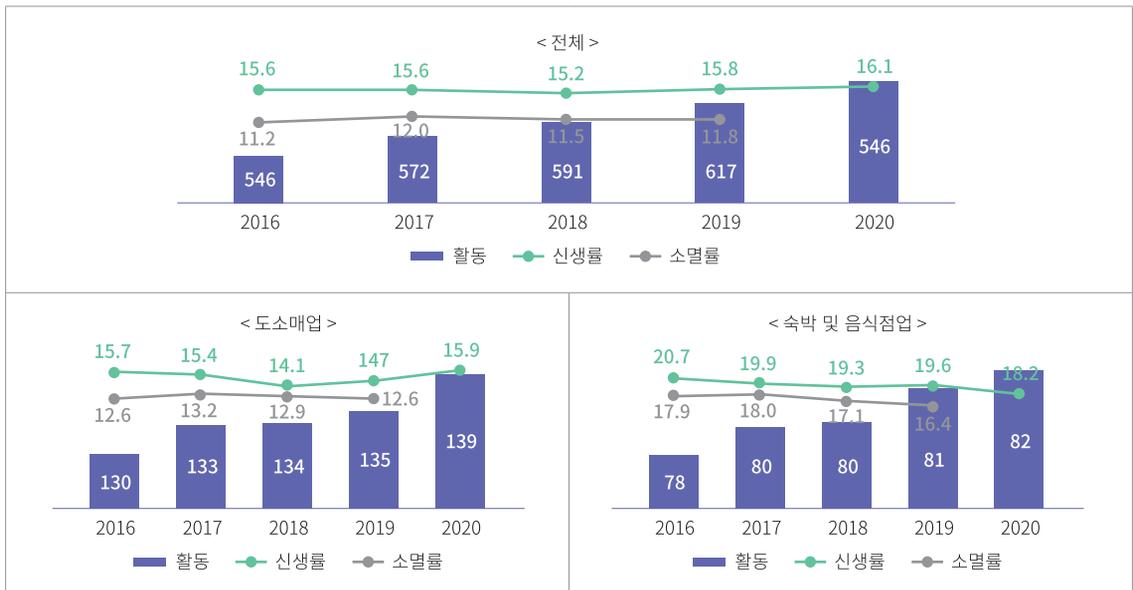
II. 신생 및 소멸 현황

1. 소상공인의 신생 및 소멸 현황

- '19년 기준 소상공인의 소멸률은 11.8%이며 신생률은 15.8%이며 2016년 이후 소상공인의 소멸률과 신생률은 유사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음
 - 소상공인의 주요 업종으로 볼 수 있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멸률 보다 신생률이 더 높은 상황임
 - 주요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주로 과밀업종, 과도한 경쟁 업종으로 분류되곤 하는데 이들 업종은 소멸수보다 신생수가 많은 상태임
 - 이는 유사한 업종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창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지출되고 있다는 것임
- 유사한 업종의 폐업 및 창업의 형태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재기를 어떤 방식(창업, 취업)으로 하느냐는 매우 관심 있게 다뤄져야 함

그림 1. 소상공인의 신생 및 소멸

단위 : 만 개, %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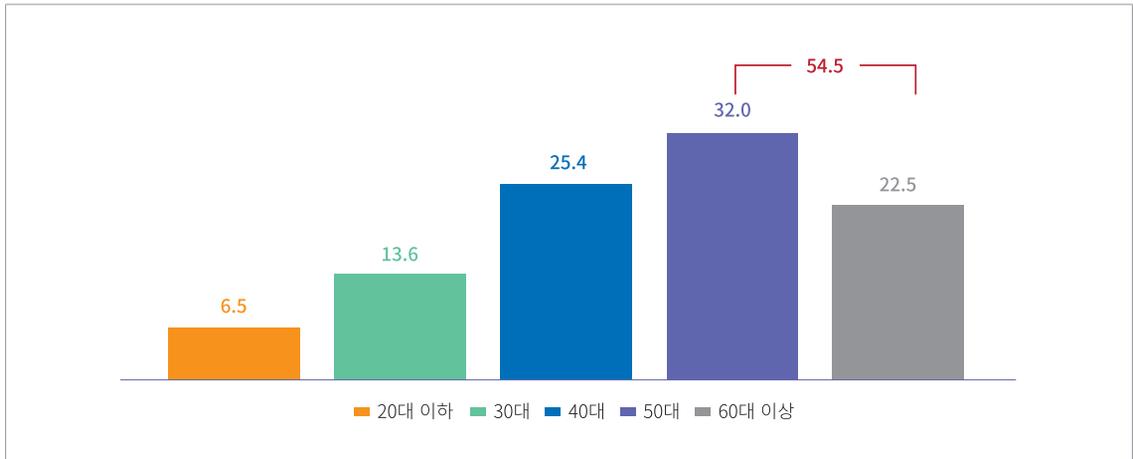
2. 소상공인 연령대

- 소상공인 중 54.5%가 5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이 22.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소상공인의 연령대 별 비중을 보면 50대가 32.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25.4%, 60대 이상이 22.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향후 고령 소상공인의 폐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 통계에 따르면 '21년 기준 폐업 개인사업자 중 24.5%가 50대이며 60대 이상은 23.8%로 48.3%가 50대 이상으로 약 절반 수준임
 - 개인사업자 중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소상공인의 평균 연령이 높아 폐업 소상공인의 연령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연령대별 소상공인 비중

단위 : %



자료 :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2020’

III. 분석 모형 및 자료

1.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 생존분석은 특정 시점부터 관심의 대상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소요되는 생존시간(Survival time)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임
 - 주로 의학 분야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생존이란 개념을 사건의 발생(Event)으로 설정하고 실업기간, 기업의 생존기간 및 부실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
- 생존분석은 회귀분석이나 로지스틱 분석과 달리 중도절단자료(Censored data)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중도절단자료란 관측기간 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를 관측하지 못한 불완전한 자료로, 대체로 우측절단(Right hand censoring)을 의미함 (Kleinbaum & Klein, 2012; Lemeshow et al, 2011)
 - Type I은 관측시작과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는 유형
 - Type II는 사건이 발생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연구를 종료하는 유형
 - Type III는 관측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시작 시점이 다르고 관측기간 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유형

● 본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폐업 후 소상공인이 재기하기 까지 소요된 기간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Type III를 가정함

- 분석자료는 소상공인이 폐업 시점, 재기 시점이 포함된 실태조사 자료임
- 소상공인의 폐업 시점이 다르며 관측 기간 내 재기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자료가 포함된 우측절단 자료임
- 중도절단까지 관측된 시간인 중도절단 시간과 생존시간이 서로 독립이 아닐 때는 복잡한 통계 모형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체로 Type III를 가정해도 무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Type III를 가정함

● Kaplan & Meier(1958)의 Kaplan-Meier 생존함수

- Kaplan-Meier 생존함수는 식(1)의 $S(t)$ 를 추정하며 그 추정치는 $j-1$ 시점까지 재기하지 못한 사업체가 j 시점에 재기할 확률을 의미함
- 재기 소요기간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하고 사업체 i 의 재기 소요기간은 $t(i)$ 이며, j 시점에서 재기를 시작한 표본수는 n_j , 전체 표본수는 N 임
- $\delta(i)$ 를 i 가 관찰 기간 내 재기를 하면 $\delta(i)=1$, 하지 못하면 $\delta(i)=0$ 인 더미로 설정함

$$S(t) = \prod_{t(i) < t(j)} \left(1 - \frac{n_j}{N}\right)^{\delta(i)} \quad (1)$$

● Cox(1972)의 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

- 비례위험모형 식(2)과 같이 종속변수가 위험함수(Hazards function)이며 t 시점까지 재기하지 못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재기 확률을 나타낸 모형임
- 식(2)에 h_0 는 모든 설명변수 x 가 모두 0인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며 분석 시 식(3)과 같이 자연로그를 취해 일반 회귀모형과 유사한 형태로 변형하여 추정함
 - 식(3)의 β 를 통해 설명변수가 재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음
 - 추정에는 부분최우도추정치(Partial maximum likelihood estimates)를 활용하며 이는 기저 위험함수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아도 독립변수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 있음

$$h_i(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 t + \Delta t | T \geq t)}{\Delta t} = \frac{f_i(t)}{s_i(t)} = h_0 \exp(\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quad (2)$$

$$\ln \frac{h_i(t)}{h_0(t)}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quad (3)$$

2. 분석 자료

- 2021년 소상공인 재기실태조사 응답자 중 재기의사가 있고, 폐업 당월 재기하지 않은 2,217명의 자료를 활용함
 - 2021년 소상공인 재기실태조사는 '20년 8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도전 장려금² 수혜자를 대상으로 3,000명을 조사함
 - 분석 대상은 3,000명 중 재기(재창업 또는 취업)의사가 있는 2,370명에서 폐업 후 즉시 재기한 153명의 자료를 제외한 2,217명의 자료를 활용함³
- 재기 및 소요기간의 정의
 - 종속변수인 기간은 재기소요기간이며 이는 행정적으로 폐업을 신고한 월을 기준으로 재기한 시점까지 소요된 개월 수를 의미함
 - 폐업 후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한 상태를 재기라 정의하고 이를 사건으로 설정함
 - 재기하지 못한 응답자는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의 재기중이라 함
 - 재기중인 응답자는 관측기간 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중도절단 자료라 할 수 있으며 그 비중은 27.1%임

표 1. 종속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변수설명
기간	재기소요기간	폐업 후 재기(재창업 또는 취업)까지 소요된 개월 수(1-15개월)
사건	재기여부	재기(재창업 또는 취업) = 1, 재기중 = 0

- 분석 대상 상태 및 소요기간
 - 분석대상이 재기했을 경우 재기에 소요된 기간과 재기하지 못하였을 경우 폐업 후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을 <표 2>에 제시함
 - 재기한 경우는 72.9%이고 재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5.04개월임
 - 재기중인 경우는 27.1%이며 폐업 후 조사 시점까지 평균 11.40개월이 지난 상태임

2. 재도전장려금은 2020년 9월~2021년 12월까지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업으로 약 30만 명의 수혜자가 있음. 재도전장려금은 다른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을 수혜자 대비 지원대상이 많고, 수혜 조건이 단순하여 정책효과로 인한 편이가 적은 사업이라 판단함

3. 생존분석은 생존이전과 이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생존기간이 0인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함(stata survival analysis reference manual release 17)

표 2. 재기 소요기간 또는 폐업 후 기간

구분	N	비중	mean	sd	min	max
전체	2,217	100.0%	6.764	4.500	1	15
재기*	1,616	72.9%	5.039	3.608	1	15
재기중** (censored)	601	27.1%	11.403	3.189	2	15

* 재기의사가 있으며, 폐업 당월 재기하지 않은 응답자를 기준으로 함

** 재기의사가 있었고, 행정적으로 폐업한 월부터 응답시점까지의 기간임

○ 소상공인 개인 및 폐업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재기 여부

- 소상공인의 특성은 개인특성, 폐업사업체특성, 정책특성으로 구분함
 - 정책특성은 폐업 사업체 정리를 지원하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무지원을 대상으로 한정함
- 개인 특성 중 성별, 연령대, 부채여부에 따라 재기 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성별을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재기한 비중이 높았고 연령대는 60대 이상의 재기 비중이 낮았음
 - 개인 특성 중 부채여부는 부채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재기한 비중이 높았음
- 폐업 사업체특성 중 점유방식, 업종, 폐업 비용 지출 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임
 - 폐업 사업체 점유 방식이 임대일 때 자가보다 재기한 비중이 높았음
 - 폐업 사업체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재기 비중이 낮았음
 - 폐업 비용을 보면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가 지출하지 않은 경우보다 재기 비중이 높았음
- 정책 수혜여부를 보면 폐업 관련된 정책을 1개 이상 수혜 받았을 경우 재기한 비중이 정책을 미수혜 한 경우보다 높았음

표 3. 특성별 재기 여부 및 log rank 검정결과

구분			N	재기 (%)	재기중 (%)	전체 (%)	log rank test	지역 층화 log rank test
							χ^2 (p-value)	
전체			2,217	72.89	27.11	100	-	-
개인 특성	성별	여자	1,108	71.75	28.25	100	2.11 (0.15)	1.88 (0.17)
		남자	1,109	74.03	25.97	100		
	학력	고졸이하	1,126	72.47	27.53	100	0.64 (0.42)	0.76 (0.38)
		초대졸이상	1,091	73.33	26.67	100		
	연령대	30대 이하	312	70.19	29.81	100	28.91 (0.00)	24.28 (0.00)
		40대	957	75.97	24.03	100		
		50대	775	74.58	25.42	100		
		60대 이상	173	53.18	46.82	100		
	지역	서울	304	82.57	17.43	100	8.16 (0.02)	-
		광역시	762	78.35	21.65	100		
		비광역시	1,151	66.72	33.28	100		
	고용보험	미가입	2,012	73.16	26.84	100	0.56 (0.45)	0.50 (0.48)
		가입	205	70.24	29.76	100		
	노란 우산공제	미가입	1,564	73.40	26.60	100	1.12 (0.29)	0.88 (0.35)
		가입	653	71.67	28.33	100		
	폐업 횟수	1회	1,201	71.44	28.56	100	0.78 (0.38)	0.49 (0.48)
2회이상		1,016	74.61	25.39	100			
부채여부	부채 없음	461	65.94	34.06	100	12.26 (0.00)	8.53 (0.00)	
	부채 있음	1,756	74.72	25.28	100			
폐업 사업체 특성	점유방식	임대	2,028	73.77	26.23	100	2.89 (0.09)	1.39 (0.24)
		소유(자가)	189	63.49	36.51	100		
	프랜차이즈 여부	독립점	1,982	72.91	27.09	100	0.04 (0.83)	0.00 (0.99)
		프랜차이즈	235	72.77	27.23	100		
	폐업 사업체 업종	음식점및주점업	449	72.83	27.17	100	6.38 (0.17)	7.11 (0.13)
		도소매업	412	71.60	28.40	100		
		서비스업	657	72.15	27.85	100		
		제조업	167	74.25	25.75	100		
		기타	532	74.44	25.56	100		
	업력	1년 미만	505	76.83	23.17	100	2.12 (0.71)	2.07 (0.72)
		1~2년 미만	214	74.77	25.23	100		
		2~5년 미만	667	72.56	27.44	100		
		5~10년 미만	375	70.13	29.87	100		
		10년 이상	277	70.76	29.24	100		
	폐업비용*	비용없음	368	60.60	39.40	100	25.66 (0.00)	19.61 (0.00)
		비용있음	1,849	75.34	24.66	100		
정책 특성	정책 수혜여부**	미수혜	1,188	68.27	31.73	100	22.71 (0.00)	14.29 (0.00)
		1개 이상 수혜	1,029	78.23	21.77	100		

* 폐업관련비용은 철거비, 원상복구비, 퇴직금 등이 있음

** 폐업 관련 정책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사업, 법무지원 중 1개 이상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함

IV. 생존분석 결과

1. Kaplan-Meier 생존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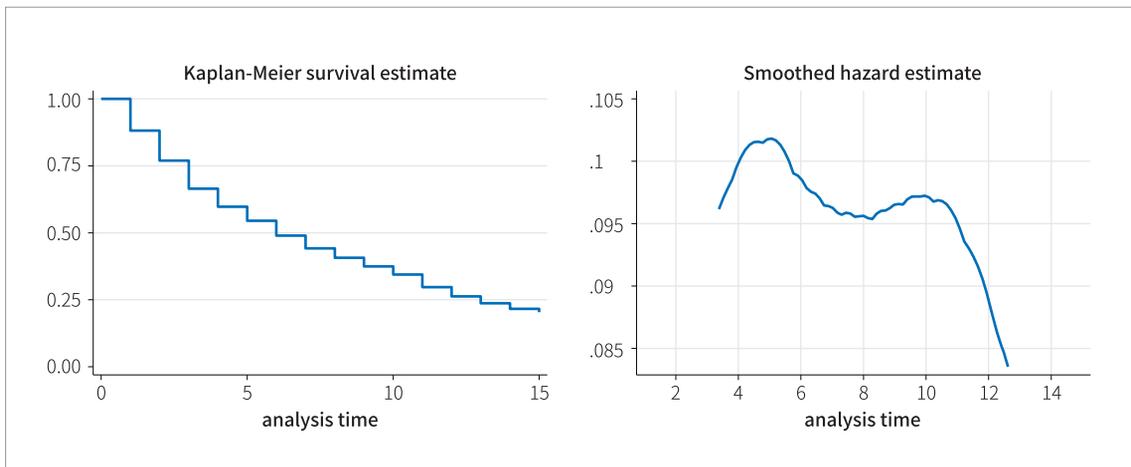
- Kaplan-Meier 생존곡선은 시간에 따라 소상공인이 재기할 확률을 나타낸 곡선임

 - Kaplan-Meier 생존곡선은 계단식으로 하향하는 형태이며, 가로축은 폐업 후 기간이고 세로축은 폐업 후 재기하지 못할 확률임
 - t 시점과 $t+1$ 시점의 높이 차이는 폐업 후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t 시점에서 재기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t+1$ 시점에 재기할 확률을 의미함
- Kaplan-Meier 생존곡선 분석 결과 소상공인의 재기에도 실업의 낙인효과 (Stigma effect)가 유의하게 나타남

 - 관찰기간인 15개월 내 재기할 확률은 약 80% 수준이며, 재기하지 못할 확률은 20% 수준임
 - 폐업 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하락의 폭이 감소하며 이는 폐업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기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위험률곡선을 보면 5개월까지 재기할 위험률이 증가하다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며, 8개월을 기점으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10개월 이후 급격히 감소함
 - 그러므로 Kaplan-Meier 생존곡선과 위험률 곡선을 봤을 때 폐업 후 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기가 어려워지며 이는 낙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소상공인 재기에 실업의 낙인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므로 폐업 후 일정기간 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

 - 폐업 후 일정기간 이상 경제활동을 단절하는 것은 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일정기간 내 재기를 시작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활동 여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됨

그림 3. Kaplan-Meier 생존곡선 및 위험률 곡선



2. Cox 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모형 분석 결과

- Cox 모형은 소상공인의 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
 - 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Cox 모형을 활용함
 - Cox 모형의 구성은 log rank 검정결과에서 유의한 변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비례가정을 만족하기 위해 지역변수를 계층화함
- 소상공인 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업종, 정책수혜 여부와 부채 및 비용이었음
 - 성별과 폐업 사업체의 점유방식에 대한 계수는 유의하지 않아 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됨
- 연령의 해저드 위험률비(Hazard ratio)⁴는 0.992로 1세 증가하면 재기하는 시점이 0.8%(1-0.992=0.008)씩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60세와 40세를 비교하기 위해 위험비의 차이를 보면, $\exp(-0.008*20)=0.852$ 이므로 60세가 40세보다 14%(1-0.852=0.148) 시점이 늦음
- 폐업 사업체 업종이 음식점 및 주점업인과 도소매업인 경우 각각 해저드 위험률비가 0.861, 0.838로 13.9%, 16.2%씩 재기하는 시점이 늦어짐
 - 폐업한 사업체의 업종이 음식점 및 주점업 또는 도소매업일 때 같은 기간 내 재기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음식점 및 주점업은 기타 업종의 해저드 위험률비는 0.861이므로 재기 시점이 13.9%(1-0.861=0.139) 늦음
 - 도소매업은 기타 업종보다 해저드 위험률비는 0.838로 재기시점이 16.2%(1-0.838=0.162)늦음
- 폐업관련 정책 수혜 시 해저드 위험률비가 1.102이므로 재기하는 시점이 10.2%(1.102-1=0.102)빨라짐
 - 폐업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사업, 법무지원을 분석에 포함함
 - 위의 지원사업은 폐업과 관련된 비용 또는 문제를 해결하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 부채가 있고 폐업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저드 위험률비가 1.539로 재기하는 시점이 53.9%(1.539-1=0.539)빨라짐
 - 부채와 폐업비용의 상관계수는 0.117로 나타나 부채와 폐업 비용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분석함
 - 부채만 있는 경우 또는 폐업 비용만 있는 경우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음
 - 반면, 부채와 폐업비용이 모두 있는 경우는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4. 위험률은 t 시점까지 재기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t 시점 직후 재기하는 조건부 확률인 $h_i(t)$ 임. 해저드 위험률비(Hazard ratio, $\exp(\beta)$)는 모든 설명변수가 0인 $h_0(t)$ 와 $h_i(t)$ 의 상대적 위험률인 $\frac{h_i(t)}{h_0(t)}$ 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 해저드 위험률비가 1보다 크다면 재기 시점이 빨라지는 것이며, 반대로 1보다 작다면 재기 시점이 늦어지는 것임.

표 4.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구분	β	Hazard ratio($e^{xp(\beta)}$)	p-value
성별(ref:여자)	0.046	1.047	(0.362)
연령(세)	-0.008**	0.992**	(0.006)
업종 (ref:그외)	음식점 및 주점업	0.861**	(0.050)
	도소매업	0.838**	(0.022)
	서비스업	0.898	(0.121)
	제조업	0.896	(0.290)
정책수혜(ref:미수혜)	0.097*	1.102*	(0.086)
폐업비용있음	0.011	1.011	(0.928)
부채있음	-0.214	0.807	(0.123)
부채있음·비용있음	0.431**	1.539**	(0.008)
소유(자가)	0.024	1.025	(0.816)
Log likelihood		-9917.7	
Global test		3.47(0.9829)	

주 :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10%유의수준에서 유의

V.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향

1. 연구 결과 요약

- 소상공인의 재기 시 실업의 낙인효과(Stigma effect)⁵가 유의하게 나타나므로 적정기간 내 재기하는 것이 중요함**
 - Kaplan-Meier 생존곡선 분석 결과 폐업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기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함
 - 위험률 곡선을 봤을 때 10개월 이후 재기하지 못한다면 재기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므로 10개월 이전에 재기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소상공인의 재기에는 연령, 폐업 사업체 업종, 재무상태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재기할 해저드 위험률비(Hazard ratio)가 약 0.8%씩 감소함
 - (업종) 타 업종 대비 음식점 및 주점업인 경우 13.9%, 도소매업인 경우 16.2% 해저드 위험률비가 낮음
 - (재무상태) 부채가 있고 폐업비용을 지출한 경우 재기의 해저드 위험률비가 53.9% 높음
 - (정책수혜) 폐업관련 지원(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무지원) 수혜 시 재기의 해저드 위험률비가 10.2% 높음

5. Heckman & Borjas(1980)가 설명한 실업의 상태가 장기화 될 때 더 긴 기간 실업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

2. 향후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향

○ (연령별 지원) 연령은 재기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층을 고려한 재기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은 짧은 기간 내 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표적집단으로 한 지원 사업을 통해 재기지원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21년 상반기 이후 20대의 자영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21년 8월 약 19만 명 수준이었던 20대의 자영업자 수는 '22년 6월 22만 명 수준으로 증가함⁶
 - 2019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8%로 창업 후 1년 내 폐업 할 확률이 35.2%라는 의미임
 - 최근 20대의 창업이 증가한 만큼 20대 또한 폐업자 수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기가능성이 높음
 - 이에 20-30대의 젊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기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 보다 성공적인 재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연령이 낮은 만큼 다양한 학습을 통해 재기 경로를 선택할 기회가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령의 증가는 재기 소요기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 재기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 소상공인의 54.5%⁷가 50대 이상이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기 가능성이 감소하므로 60대 이상의 자발적인 재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 이들이 경제활동을 희망했으나 재기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가 부양해야 할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고령의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실버 재기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만 60세 이상의 지속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공익활동, 자원 봉사활동, 취업알선, 고령자 취업유지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고령의 폐업소상공인 또한 이들의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 시간과 육체적 노동력 투입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이나 재창업 및 공동창업 지원 등을 고려 할 수 있음

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0

- (업종별 지원) 폐업 사업체의 업종이 음식점업 또는 도소매업인 경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함
 - 과밀업종 또는 저숙련 직무를 수행한 경우 상대적으로 재기가 어려움
 - 타 업종 대비 음식점 및 주점업인 경우 13.9%, 도소매업인 경우 16.2% 해저드 위험률이 낮으므로 재기할 가능성이 낮음
 - 음식점 및 주점업은 소상공인의 약 19%, 도소매업은 27%⁸을 차지하며 흔히 말하는 과밀업종, 생활밀접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이들 업종은 상대적으로 저숙련 직무를 수행한 경우가 많아 적당한 취업처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과밀경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다른 업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재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폐업의 원인 분석 및 전문적인 교육 제공하여 재기할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창업을 희망한다면 교육을 통해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이전 폐업에 이르게까지 한 문제를 개선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이 필요함
 -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적인 기술 교육이나 숙련된 직무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이 요구됨
- (재무적 지원) 재무적인 지원을 통해 충분한 준비 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재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재기 위험률이 증가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효과이기 보다는 재무적 문제를 다급히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부채가 있고 폐업비용을 지출한 경우 재기 시점이 53.9% 빠름
 - 재무적 문제를 급히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재창업 하거나 저임금 또는 질 낮은 일자리 취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재창업 사업체의 폐업 또는 낮은 일자리 만족도로 인한 퇴직 등으로 이어져 실업상태에 이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재기 후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 될 때까지 재무적인 문제를 유예하는 등과 같은 지원을 검토가 필요함
 - 이자비용과 같은 비용은 일정기간 유예하고 재기 후 분할 상환하는 등 재기 소요기간을 고려해 재무적인 문제를 잠시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단순히 재무적인 문제를 일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VI. 시사점

-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은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의 순환을 유도할 것임**
 - 연구 결과 소상공인의 폐업 지원은 재기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는 경제활동의 단절을 막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나 그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과거 과밀업종을 운영하였거나 저숙련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 재기가능성이 낮아짐
 - 폐업 후 재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재기를 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재기유지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상공인의 재기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폐업 이후 적정기간 내 경제활동을 재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돕고, 사회적인 측면으로 시장경제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기 지원이 요구되므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 소상공인의 개인적 특성과 폐업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재기 가능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함
 -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참고문헌〉

- 강순희·안준기(2010),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 28(2), 201-231.
- 강주연·오유·김기승(2015), “대졸자 특성과 취업 소요기간”, 「산업관계연구」, 25(2), 31-49.
- 남윤미(2017), “국내 자영업의 폐업을 결정요인 분석”, 「BOK 경제연구」, 5.
- 박국호(2020), “소상공인 재지원제도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 21」, 11(3), 283-296.
- 이민정·김양중(2019), “지역상권내 할인마트가 소상공인 이윤에 미치는 영향: 충남사례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1(2), 1-21.
- 정은애·한정미·장은정(202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정책연구보고서」, 2021(21), 1-223.
- 조영룡·박주영(2021), “폐업 소상공인의 재무적자본·시장경쟁력·사회적자본 손실지각이 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 실패 두려움의 매개효과와 창업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43(4), 59-93.
- 지용하·양해술(2009), “소상공인의 업종전환과 정부기관의 역할”,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0(12), 3804-3814.
- 홍서연·안주엽(2002), “청년의 학교 졸업 후 구직기간의 분석”, 「노동정책연구」, 2(1), 19-46.
- Cox, D.R.(1972), “Regression models and life-tabl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34(2), 187-202.
- Heckman, J.J., G. J. Borjas(1980), “Does unemployment cause future unemployment? Definitions, questions and answers from a continuous time model of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Economica, 47(187), 247-283.
- Kaplan, E.L., P. Meier(1958), “Nonparametric estimation from incomplete observ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3(282), 457-481.
- Kleinbaum, D.G., M. Klein(2012), Survival analysis: a self-learning text (vol 3), New York: Springer.
- Lemeshow, S., S. May, D. W. Hosmer Jr(2011), Applied survival analysis: regression modeling of time-to-event data. John Wiley & Sons.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소상공인·시장

ISSUE&NEWS PAPER

폐업 소상공인의 낙인효과와 소상공인 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발행인 | 박성호 이사장 | 편집인 | 광성호 센터장 | 발행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 발행일 | 2022년 10월 31일

| 주 소 | 34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로이어즈타워 6층(TEL. 044-960-7001 / FAX. 044-960-7099) | 인쇄 | 디자인숲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